

A. 주제 (Thesis)

-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는 죽는다.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적, 은유적, 성례전적인 접근방식은 예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해답이다.
- 예수는 하나님의 한 은유이다.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,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.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본다. (p. 159, 162)

B. 문제점 (Problems)

-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(특히 common sense 를 가진) 예수 이미지의 문자주의와 배타주의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.

C. 논점 (Argumentation)

역사적-은유적-성례전적 접근방식이 중요한 이유

1. 과거의 패러다임의 예수 이미지와 그에 따른 기독교인의 삶의 이미지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.
2. 부활절 이전의 예수와 부활절 이후의 예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.
3. 복음서들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음서들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.
4.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론적인 표현 (부활절 이후의 표현들 = 교회 공동체의 음성 = 은유 = 고백과 결단의 표현) 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.
5. 기독교론적 언어의 중층적인 (cumulative) 의미를 토대로 한 것이다.

과거의 패러다임	새로운 패러다임 (역사적-은유적 접근방식)	
	부활절 이전의 예수	부활절 이후의 예수
예수의 정체성을 강조 - 하나님의 아들 - “세상의 빛”, “생명의 떡”, 약속되었던 메시아 - 죽음 = 구원 = 삶의 목적	역사적 예수 (기원전 4 년경 태어나 기원후 30 년경 로마인들에 의해 처형된 갈릴리의 유대인)	기독교인들의 체험과 전통의 예수 (그의 제자들에 의해 신적인 실재로서 계속해서 체험되어졌으며 그런 체험이 오늘도 계속됨)

<p>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, 예수의 소명으로 이해 (문자적인 이해)</li> </ul> <p>동정녀 탄생과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강조</p> <p>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기독교는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는 것을 강조</p>	<p>죽음 이전의 예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대교 신비주의자 (a Jewish mystic)</li> <li>2. 치유자 (a Healer)</li> <li>3. 지혜의 스승 (a Wisdom Teacher)</li> <li>4. 사회적 예언자 (a Social Prophet)</li> <li>5. 운동의 창시자 (a Movement initiator)</li> </ol> <p>위의 다섯 가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: <i>The Meaning of Jesus: Two Visions</i>. Pp 53-76</p> <p>What shaped Jesus (pg. 64-6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His religious experience</li> <li>- Traditions of Judaism</li> <li>- Experience of injustice (passion for social justice &amp; unusual sensitivity to the poor &amp; marginalized)</li> </ul>	<p>십자가에 대한 해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배체제의 악을 폭로</li> <li>2. 권세들의 패배를 노출</li> <li>3. 변화된 삶의 “길”에 대한 계시</li> <li>4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 계시</li> <li>5. “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” (희생재물) – 본래는 성전의 용서 독점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독점권을 부정하는 성전반대 선언 (체제전복적인 은유) ≠ (문자적 묘사)</li> </ol>
---	--	--

D. 평가 (Critique)

- 보그는 “역사적 예수 연구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” (pg. 147)고 주장한다. 크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아니다. 부활절 이전의 예수, 부활절 이후의 예수를 모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보그의 입장에서 서서 볼 때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?
- 부활절 이후의 예수에 대한 설명은 십자가에 대한 해석으로 대치되었는데 예수의 죽음 이후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체험적 실재 (experiential reality) 이며 “Christ” 로 고백되는 사건들 (부활)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좀 불만이였다.

E. 생각해 보기

-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?
- 우리는 오늘 배운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? 내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?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을까?